

남아공 김영애 선교사 10월 선교소식 올립니다.

그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계절이 반대인 아프리카는 찬란한 봄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동역자 분들께 선교지 소식 간략하게 정리해 올립니다.

1. 불안한 정국

남아공은 제노포비아로 인해 나이지리아, 콩고등 아프리카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흑인 지역 상권을 장악해 가는 것으로 인해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가 막혀 들어갈 수 없는 사역지도 있습니다.

은행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법원의 위법 판결로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남아공 정부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힘들고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 야간 신학교

1) 10월 13 ~16일까지 3박 4일간 현지인 사역자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로는 미국에서 압 교수님과 밥 목사님께서 오실 예정입니다.

2) 9월 10 일 토요세미나는 알렌교수님께서 강의하셨고 참석한 사역자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이었습니다.

3) 3번째 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개강을 하면 11월에 졸업식이 있어 열심을 다해 마무리 해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3. 유치원 소식

15개 유치원은 안정적으로 원아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랑가 지역 유치원은 안전 문제로 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놀이터와 교실 수리 그리고 증축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해소되어 제노포비아 소동으로 몇몇 지역 유치원들은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사태가 왔지만 유치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 교회 소식

1) 마카사 사랑 선교 교회는 헌당식을 하려고 일자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설들도 잘 정리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2) FBM 장로교회는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긴 여정이 예상되지만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대회

12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중부와 남부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장의 직분을 감당하느라 어깨가 무겁고 힘겹습니다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며 힘을 얻습니다.

남아공에서 가장 오래된 시골스럽지만 아름다운 호텔 전체를 빌렸습니다. 컨퍼런스 홀이 4개가 필요한 큰 선교대회이고 250명 이상 더 수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 늦게 신청한 선교사 가정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6회 대회인데 가장 많은 숫자가 등록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 지치기도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7. 가족 소식

큰아이 진원이의 차가 주차된 곳에서 창문을 깨고 핸드폰 등 중요 물품들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기도제목 올립니다.

1.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대회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 주소서
2. 진원이 진현이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성령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는 은총 속에 살게 하소서
3. 부족한 생활비와 사역비를 공급해 주소서
4. FBM 장로교회 건축을 위해 동역할 손길을 허락하소서

1987년에 출발한 선교사의 길을 2019년 현재까지 걸어가고 있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결같이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셔서입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남아공에서 김영애 선교사 올립니다.

